



# 올해 겨울은 길고양이와 주민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 부탁 드립니다.

**사람과 길고양이는 신석기시대부터 서로 이웃하며 살아왔습니다.**

곡식 보관 창고 주변의 쥐를 잡아 먹기도 하고 때로 사람 손에 길어 집고양이로 함께 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과 공존해 왔습니다. 이제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면서 고양이의 먹이와 생활 습관도 얼마간 변했습니다. 또 그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자연 요소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고양이가 함께 살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삶도 더욱 풍요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와 전문가, 주민, 그리고 자원하여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해 나가야겠죠.

**물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없진 않지만 해결책도 있습니다.**

## ○ 음식물쓰레기를 흩어놓아 거리가 깨끗하지 못해요!

-> 우리 동네에는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대신 먹고 살 수 있는 사료를 공급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.

## ○ 그러면 길고양이가 마구마구 늘어날 거잖아요!

-> 그 점을 예방하고, 또 길고양이가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냄새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자원가들이 협력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고 있어요. 그렇게 적당한 수의 길고양이를 유지하면 전염병을 옮기는 쥐의 과잉 번식도 막을 수 있어요.

**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이렇게 예방해요!**

길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되면 추위를 느낍니다. 그래서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을 찾아 건물의 외판 지하실 구석이나 계단실, 또 경험이 없는 어린고양이의 경우 열이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, 그러다 보니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아침에 시동을 켰는데, 엔진룸 속에 들어가 있던 새끼 고양이가 끼어 죽거나 다치고 또 자동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, 지하주차장 구석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보이는 불빛에 놀라 뛰어나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람과 고양이 모두에게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**이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할까 합니다.**

**사소한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생명을 거두는 일도 예방하고 또 여러분의 자동차가 고장나는 일도 예방할 수 있어요.**

1. 자동차에 타기 전 보닛을 여러 번 노크를 하고, 출발하기 전 차 아래를 확인해요.
2. 주차장을 나올 때는 평소보다 더 서행해요.
3. 지하실을 이용한 후 그 사이 고양이가 들어와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문을 잠궜어요.
4. 환기통에 길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을 이용해 입구를 막아요.



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동물자유연대